

민주 지역 국회의원들 새정치 활로찾나

대선 패배후 리더십·비전 부재 비판 속 탈계파·탈이념, 민생·실용 정치 움직임

대선 패배 이후, 리더십과 비전 부재에 대한 비판이 직면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며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3선 이상의 지역 대선 의원들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기 총선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4선임에도 정치적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김성근 의원은 비대위 전대준비위원장을 맡은 것을 물론 중도 상향 의원들의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중도 그룹 의원들과 함께 2~3차례 회동을 더 갖고 공식적인 모임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나연, 우윤근 의원 등 지역 의원들도 중도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선의 이용섭 의원은 탈계파, 당혁신, 정책 연구를 목표로 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주춧돌'발족에 중심 역할을 했다.

초·재선 20여명을 멤버로 하는 주춧돌은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으며, 이념 편향에서 벗어나 민생과 실용적 진보를 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9일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초청, '한국 정치의 나

아갈 길'이란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 여기에 비대위원인 김동철 의원은 '쇄신 모임' 소속으로 민주당의 쇠퇴를 위해서 당내 각종 그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같은 '쇄신 모임' 소속인 황주홍 의원도 지난 주, 전북 정읍에 이어 자신의 지역구인 장흥과 강진에서 쇠퇴 모임 워크숍을 갖는 등 당내 비주류 그룹 의원들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는 인사가 없다", "패권적 계파주의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당내 민주당의 국민 신뢰 회복이 요원하다"는 등 사실상 친노와 주류 그룹을 겨냥한 성토와 압박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남 의원은 탈계파, 탈이념을 모토로 분야별 정책 및 현안을 연구하는 당내 의원 모임인 '대안'에 참여하고 있다.

강기정, 우윤근, 전병현, 오영식 의원 등 일부 3선 그룹 내에서도 계파 정치의 폐해 해소 등을 목표로 내세운 모임 구성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계파주의가 민주당의 고질적 병폐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냉정한 대선 평가를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 정책·노선 재정립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그동안 계파 정치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온 측면이 있는 인사들이 '계파 정치 청산'에 나선다며 냉소적 입장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친노·주류 진영과 각을 세우고 있는 성향이어서 전당대회 등 당내 세력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혁신적 변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선 의원들도 정치적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자신의 역할 찾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발언을 통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노·사·정간 '2+3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위 인선 지연...경선 틀 험로 예고

계파간 이해관계 복잡 입기·지도체제·모바일 경선 등 논란 클듯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인선이 미뤄지면서 경선 틀 마련 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치혁신위와 대선평가위를 가동시켰으나 전대준비위는 아직까지 위원 인선조차 못한 상황이다.

예초 민주당은 지난 25일 전대준비위원 명단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이 이후, 최종 조율을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지연 배경으로는 당내의 복잡하게 얽힌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꼽히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군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틀을 유리하게 설계하기 위한 계파 간의 미묘한 힘 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대준비위의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경선 틀과 당헌·당규, 노선 등을 둘러싸고 2차 계파 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선 틀의 경우 주요 쟁점은 새 지도부 임기와 지도체제, 모바일 경선 유무 여부 등이다.

새 지도부 임기의 경우 당내에서는 지도부 임기를 2년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을 개혁하려면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을 갖고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노 및 주류 그룹 일각에서는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로 한정해야 당내 분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모바일 경선의 경우, 비주류 측은 그동안의 부작용 등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 주류 측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서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도체제는 위기 돌파를 위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집단지도체제보다 단일지도체제가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단일 지도체제가 된다면 주류와 친노 그룹이 다시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도 있다.

지역사회 헌신 매주 민생활동 편다 민주 광주시당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 장병완 국회의원)은 27일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기 위한 민생활동을 매주 한 차례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를 위해 지난 25일 첫 활동으로 광주 광산구 어등산 등산로 일대에 대한 정화활동을 펼쳤다. 당직자들과光山 갑·을 지역 위원회 당원 등 50명은 이날 등산로 일구에서부터 약수터까지 2시간 가량 쓰레기 수거작업을 했으며, 등산객들을 상대로 쓰레기 봉투를 나눠주며 깨끗한 산책로 가꾸기 캠페인도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용준 총리후보 내달 인사청문회 두아들 병역면제·재산 증식 쟁점화 5·18특별법 반대 의견도 논란 예상

국회가 내달 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병역, 재산, 판결 성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들 병역 면제 =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10월 신장 및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사실상 면제를 의미한다.

◇아들 재산 = 김 후보자의 재산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첫 재산신고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대법관 중에 가장 많은 29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장남과 차남 명의의 재산이 무려 18억8000만원에 달해 김 후보자와 부인의 재산보다 많았다.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소신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일부 판결을 놓고 논란을 빚을 소지도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던 1996년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벌어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를 1993년 2월24일까지 정지하도록 한 5·18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 후보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차남 범중씨도 1994년 7월 징벌(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25일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관련된 질문을 두 차례 받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2등급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58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재산 대부분이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상속세 등 관련세금을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두 아들이 1993년 시세로 20억원인 부동산을 7, 8세 때부터 소유했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헌정질서 파괴범을 처벌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도 우리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범치주의 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시절인 1990년 문익환 목사 등의 밀입북 사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확정판결, 1991년 사노맹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첫 확정판결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차당선인 "가계부채, 새정부 출범 즉시 해결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분야 대선공약을 강력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경제1분과 인수·전문위원과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 측이 27일 전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행복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는 "자활 의지

부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 당선인은 "돈도 없는데 이것 저것 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설계를 잘하고 정확한 결정을 갖고 복지정책을 해결하면 이는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을 오히려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고

로 높은 만큼 이것은 꼭 돼야 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도 다 합쳐 '기초연금'으로 하는 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 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박 당선인은 또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그리고 연구개발(R&D) 관련법을 상·하반기 나눠서 처리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만 계속 가게 되니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당선인 취임식 슬로건·엠블럼 공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

오는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의 슬로건은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슬로건인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로 결정됐다. 엠블럼은 태극 무늬를 모티브로 새시대·새희망·새바람의 의미를 담아 디자인됐다. '강남스타일'로 세

계적 가수가 된 싸이는 취임식 식전 행사에서 공연을 한다. 김진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취임식 기초가 '통합과 전진, 국민의 삶 속으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박 당선인은 이번 취임식을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취임식 식전 행사에는 싸이를 비롯해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연진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2월25일 0시 서울 종로 보신각 타종 행사와 함께 시작된다. 이어 국립묘지 참배, 취임식 행사, 경축 연회, 주요 외빈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학년도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신입생 모집

- 1. 석사과정(야간)**
 - 모집전공: 공공행정전공, 자치행정전공
 - 수강지역: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원서 접수 기한
 - 특별전형(면접): 2013. 1. 31(목) 18:00 까지
 - 일반전형(면접 및 필답고사): 2013. 2. 14(목) 18:00 까지
 - 전형별 지원자격은 홈페이지 참조바람
- 2. 최고정책과정**
 - 모집대상: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원, 경영인 등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월요일 야간강의)
- 3. 관리사과정**
 - 모집대상: 공무원, 기업체 경영인 및 임직원, 각종 사회단체인
 - 원서접수 기한: 2013년 2월 까지 수시 접수
 - 수업방법: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 과정 (매주 목요일 야간강의)
- 4. 문의사항**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 전 화: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운명철학

人間の 길흉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천천적으로 타고나는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아래서도 죽한끼 제대로 못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털들은 정녕 노력의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허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전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 있는지 참고점점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 대만, 대한민국 자미두수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천문 지미두수)로 수십년을 요달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환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광역시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꿈향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목도연빌딩 임대

※옥탑 광고 임대※

- ⇒ 2호 광장 5거리 코너, 6층 건물
- ⇒ 엘리베이터 2대
- ⇒ 건물상태 최상
- ⇒ 임대료/관리비 저렴
- ⇒ 문의 : H.010-3605-5000

▶ 면적 : 각층 110평, 전체/분할임대 가능

▶ 용도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금융기관, 사무실, 교회, 헬스장, 등등